

4-15. 방에서의 오이 조기재배시 해충발생과 약제처리방법 및 망사설치에 의한 해충방제 효과

한만중, 이상계, 최병렬, 박형만, 유재기, 황창연*

농업과학기술원 농업해충과, 전북대학교 농과대학*

수원에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비닐하우스 오이 조기재배시 발생하는 해충을 조사하고, 주요 해충에 대한 약제방제체계 확립 및 망사설치에 의한 해충발생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9년 4월 20일에 수원의 농업과학기술원 시험포장 비닐하우스(무가온)에 20일 정도 육묘된 오이(은성백다다기)를 정식하고, 시기별로 해충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주요 해충은 목화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등 이었으며, 약제처리방법별 목화진딧물 방제효과는 입제처리구+희석제 2회처리구와 희석제 2회처리구에서는 생육후기인 7월 중순까지 95% 이상의 방제효과를 유지하였으나 입제처리구에서는 6월중순경부터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이였다.

2000년에는 농업과학기술원 시험포장에서 비닐하우스의 출입문과 측면에 100 mesh의 망사를 설치한 비닐하우스와 망사를 설치하지 않은 비닐하우스로 구분하여 4월 24일에 20일 정도 육묘한 오이(은성백다다기)를 정식하여 시험하였다. 5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 비닐하우스내 온도를 비교 조사한 결과 망사를 설치하지 않은 구에 비해 망사설치구에서 평균기온은 1℃, 최고기온은 3~4℃ 높게 경과하였으나, 최저기온은 비슷하였다. 망사설치 유무에 따른 해충의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목화진딧물과 아메리카잎굴파리는 망사설치구에서 발생이 현저히 적었으나, 꽃노랑총채벌레는 망사설치구에서 발생이 다소 많았다.